

하이원 리조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 프로모션

하이원 리조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이원 그랜드 스탠다드 룸을 하루 20실 한정으로 주니어 스위트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랜드데이를 저녁 뷔페에서는 성인 2인 당 미취학 아동 1명의 무료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시 신분증과 접종확인서, 접종배지, 스티커 등 백신 접종 증명수단 중 하나를 보여주면 된다. 사진제공 | 하이원리조트



동아미디어그룹·제너시스BBQ그룹·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진행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2030세대를 타겟으로 선보인 소규모 매장 '비비큐 스마트 키친(BSK)'.

사진제공 | 제너시스BBQ

“창업·성공 꿈꾸는 열정청년을 찾습니다”

19일까지 접수...최종 200팀 선발 BSK 운영자금 등 8000만 원 지원 3년간 매장 잘 꾸리면 명의 이전도 채널A '행복한 아침'서 선발팀 발표 윤홍근 회장 "도전기회 주고 싶었다"



윤홍근 BSK 회장

동아미디어그룹,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요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성공이 검증된 포장·배달 전문 매장인 BSK(BBQ Smart Kitchen)를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높은 장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청년들에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역	인원
서울	14
경기	14
강원	14
충청	14
영남	14
호남	14

동아미디어그룹, 제너시스BBQ그룹, 잡다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의 포스터.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청년들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다져 성공한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9일까지 '2인 1팀' 6개 권역별 모집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6개 권역으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발 과정을 통해 최종 200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은 B

SK 매장부터 인테리어, 시설, 초기 운영 자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지원 받게 된다. 이들이 3년간 매장을 잘 꾸리면 명의까지 이전해 주 사업가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

참가 신청은 19일까지 BBQ, 채널A, 잡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2021년 7월 6일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2인이 1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스펙과 배경을 배제하고 오로지 참가자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인사 전문기업인 마이디스인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역량검사를 도입기로 했다. 21일부터 진행되는 역량검사는 언제 어디서든 PC만 있으면 취업 플랫폼 잡다를 통해 가능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략게임, 성장파악, 영상면접을 통해 직무 적합도와 역량 스펙트럼을 분석해 인재를 선발한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차별 소지가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등 성과역량을 평가한다.

최종 선발된 200팀은 8월 18일 채널A 생활정보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일주일간 교육을 이수한 후 9월경 첫 매장을 열게 된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패기와 열정을 앞세워 사회에 걸음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차그룹 5개사, RE100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 계획 제출해야 5개사,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 설치 예정

현대차그룹 5개사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가 이달 중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RE100은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 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 기업은 가입 이후 1년 내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받는다.

현대차그룹 5개사는 2050년 RE100 달성이 목표다. 각 사별 여건과 해외 진출 사업장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2040년 이후부터 조기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도 추진한다. 5개사는 이를 위해 공동 진출한 글로벌 사업장에서 RE100 대응 협업체계를 갖추고,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거래계약'(PPA), 한국전력을 통한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사들도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LG전자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영업익 12조5000억 원...매출은 2분기 최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에 나란히 깜짝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었고, 매출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5000억 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4% 증가한 매출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53.37% 증가했는데, 약 17조6000억 원을 기록했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 실적이다. 업계는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봤다. 수요 강세를 보인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실적이 시장 예측보다 좋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2분기 매출 17조1101억 원, 영업이익 1조1128억 원의 잠정실적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4%, 65.5%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역대 2분기 가운데 가장 크다.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LG전자의 호실적은 생활가전 부문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전자는 이달 말 휴대전화 사업을 종료한다. 따라서 MC사업본부 실적은 2분기 실적발표부터 중단 영업손실로 처리된다. 김명근 기자

LGU+, 국내 최초 8K 3D VR 드라마 공개



LG유플러스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플레이리스트와 협업해 VR 서비스 플랫폼 'U+VR' 애플리케이션에 국내 최초 8K 3D VR 드라마 '리필 - If Only'(사진)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고해상도(8K), 3차원 입체효과(3D), 가상현실(VR) 기술까지 모두 적용된 드라마다. 8K VR 콘텐츠는 컷이 많을수록 촬영 시간·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선풍 구도가 다양한 드라마로 제작된 사례는 드물다.

LG유플러스는 드라마 콘티 외에 별도의 선풍 카메라 배치도를 통해 해법을 마련했다. 8K VR 카메라는 구도를 옮길 때마다 수 시간이 지체되는데, 사전에 부감도로 구성해 시간 단축과 제작비 감소를 이끌어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4K VR 콘텐츠에선 전방의 해상도가 HD급에 불과하다. 8K VR은 바라보는 곳의 픽셀이 풀HD급 이상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 편안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소자본 창업 위한 '소규모 매장'

BSK(BBQ Smart Kitchen)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의 BSK가 2030세대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BSK는 '비비큐 스마트 키친(BBQ Smart Kitchen·사진)'의 약자로,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2030세대를 타겟으로 선보인 소규모 매장 형태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배달과 포장으로만 특화된 매장 모델을 개발했다. 지난해 6월 공식 런칭 이후 6개월 만인 12월

에 100호점을 열었고, 9개월 만인 3월에 200호점, 1년 만인 지난달에 300호점을 오픈하는 등 위드코로나 시대 창업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이점은 가맹점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으로,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들을 위해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을 희망하는 2030세대를 위한 1% 초저금리 대출(점포 당 최대 5000만 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나은행 프랜차이즈론'을 통해

100명 이상의 2030세대가 혜택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내집 고객이 없는 만큼 입지 조건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점이 BSK의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보증금, 권리금, 월 임대료 등 초기비용과 고정비용이 절감돼 가맹점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경을 중시하는 시대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이 제품의 조리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 쿨링클래스 형태의 오픈형 주방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새로운 미



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을 마련하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사업에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BBQ의 새 모델인 BSK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